

TV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such as World News Review, EBS 뉴스, and various drama series.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including EBS 뉴스, 시사인사이드, and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shows.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including 시사인사이드, EBS 뉴스, and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show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6일(음 7월 11일 己酉)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the 6th of August, list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시청률 위해 ‘오버’하지 않겠다”

SBS ‘기분 좋은 날’ 주인공 박세영·이상우

출로 곳곳하게 세 딸을 키워 낸 어머니가 있다. 세 딸에게만은 번듯한 남자들을 짝 지워 주겠다고 다짐한 어머니는 사윗감들을 찾아서 고군분투한다. 그러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짝을 만나게 된다. SBS 주말극 ‘기분 좋은 날’에서 탤런트 박세영(26)은 이 이야기의 중심에 선 둘째딸 정다정 역으로 출연하고 있다. 정다정은 중학교 영양사에서 배수로, 다시 떡집 아르바이트로 계속 직업이 바뀌며 순탄치 않은 나날을 보내다가 떡집의 만수자인 완벽남 서재우(이상우 분)와 뜻밖의 사랑을 시작한다. 5일 오후 경기 고양시 탄현 SBS제작센터에서 열린 ‘기분 좋은 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박세영은 “서재우와 정다정은 정말 솔직하고 본능대로 표현하는 커플”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영은 “이 커플은 연애 초보가 아니라 연애 고수 같다고 이상우 씨와 이야기했었다”면서 “둘의 대화를 듣고 많은 분이 ‘오글거린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들 마음을 가장 솔직히 표현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세영은 이들 커플의 사랑 연기가 호평을 받고 있음에도 시청률은 낮은 데 대해 “시청률을 신경 쓰지 않는 건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시청률을 올리려고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오버’해서 다른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드라마가 가진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기분 좋고, 사랑스러운 드라마를 잘 표현해내기 위해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세영은 요즘 극중에서 서재우의 어머니인 김신애(이미영 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다정이가 사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하는데 답답해 보기도 하지만 자기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다정이를 김신애 여사가 언젠가 알아주지 않을까요. 이미영 선생님께서 실제로는 저를 예뻐해 주셔서 즐겁게 촬영하고 있어요.” “시청자들도 ‘기분 좋은 날’ 출연자들이 행복하게 촬영하는 것을 느낄 거예요. 처음부터 캐릭터에 잘 동화돼서 연기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자기 캐릭터에 녹아들어서 찍고 있으니 그 모습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분 좋은 날’의 저조한 시청률은 남자 주인공 서재우 역을 맡은 배우 이상우(34)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법하다. 이날 이상우는 이런 예상과는 달리 “시청률이 잘 나오면 고마운 일이지만 지금 시청률에 큰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이상우는 “좋은 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4개월 정도 찍었는데 아무 문제나 사고 없이 지나와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우가 맡은 서재우는 떡집을 운영하는 김철수·이순옥(최



이상우·박세영

불암·나문희 분) 부부의 첫째 손자다. 뛰어난 외모에 번듯한 학벌, 회사에서도 유능한 완벽남이다. 그는 극중에서 어머니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주인공인 정다정(박세영)을 만나면서 순정남으로 변신, 일광달리광한 연애를 한다. 이상우는 “재우와 다정은 매우 건강한 사랑을 하고 있다. 둘의 사랑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대로, 되바라지지 않은 사랑을 하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우는 최근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성실하게 작품에 출연하고 있다. 지난 4월 26일부터 방송된 드라마는 지난 주말 30회를 찍고 이제 종반으로 향하고 있다. “무엇보다 앞으로도 아무 사고 없이 촬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자들이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찍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인물이지만 현실처럼 연기 해야죠”

SBS ‘끝없는 사랑’ 서인에 역 황정음



“서인애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치의 의심도 하면 안되는 것 같아요. 물론 무척 비현실적인 인물이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는 비현실적이지만 제가 그렇지 않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죠.” SBS TV 주말극 ‘끝없는 사랑’의 여주인공 서인애는 사실 ‘말도 안되는’ 캐릭터다. 하지만 그런 서인애를 연기하는 황정음(29)은 그런 인물이 실재한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연기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고양시 탄현 SBS제작센터에서 만난 그는 “모든 것은 제 마음에 달린 것 같다. 이 캐릭터를 맡고 따라가나 아니면 거부할 것이다. 근데 이 세상에는 여러가지 일이 일어나니까 서인애 같은 캐릭터도 어딘가에는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연기한다”고 말했다. 격동의 1980년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소년원에 끌려간 서인애는 그 안에서 검정고시를 통과해 법대에 입학한다. 법대에 입학한 그는 소년원 시절 출연한 다큐멘터리를 본 영화감독의 눈에 띄어 ‘한국판 데스’로 전격 발탁돼 영화배우로 데뷔한다. 영화에서는 정순가련한 여성 캐릭터를 소화하는 그이지만 그는 어린시절부터 복싱을 해서 ‘한 주먹’한다. 그래서 남자들과의 격투도 많이 벌여가 된다. 그런 서인애에게 총리의 외동아들이 첫눈에 반하면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총리의 부인은 서인애를 매장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서인애는 그와중에 유신정권 타도 운동에 연루돼 서빙고 고문실로 끌려간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서인애는 총리의 사생아라는 출생의 비밀을 안고 있고, 드라마의 시놉시스에 따르면 그는 더한 고초를 겪은 뒤 변호사를 거쳐 한국 최초의 여성법무부장관까지 오르게 된다. 황정음은 “물론 서인에 같은 캐릭터를 내가 본 적은 없다. 하지만 세상에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나. 내가 믿고 연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캐릭터의 비현실성보다는 이러한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연기가 굉장히 어렵다.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40부작인 ‘끝없는 사랑’은 이제 10부까지 방송됐다. 지금까지는 캐릭터 소개와 인물들의 관계 설명에 치중했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이 제작진의 설명이다. 황정음은 “인애는 여자로서 겪지 말아야 할 일들까지 겪으면 서 자아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 굉장히 힘든 연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너무 어려워져 옛날 같으면 머리를 싸매고 밖에도 못 나가고 대분만 보고 있었을텐데 요즘은 사실 내려놓았어요. 어차피 제가 경험한 일들이 아니어서 머리를 싸매고 답이 나오진 않거든요. 영화나 다큐를 보면서 인애의 상황을 간접경험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격투신, 고문신 등 힘겨운 신을 잇달아 촬영한 것에 대해 “초반에는 대역도 있고 새로운 것을 하다보니 굉장히 재미있었다. 신이 낫다. 그런데 최근 고문 신을 찍으면서 실제로 뺨도 맞고 힘든 연기를 하고 나니 정말 화가 나서 저절로 감정이 나오더라”며 웃었다. 전작 ‘비밀’에서 ‘눈물의 여왕’으로 등극했던 그는 이번에도 절절한 눈물 연기를 이어가고 있다. “‘비밀’은 멜로의 여주인공을 처음 하는 것이라 그저 신이 났어요. 우는 장면이 많았지만 그것도 재미있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또 울려나와 힘든 감이 없지 않았어요. 워밍업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우는 연기를 할 때마다 느끼지만 굉장한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신경 쓸 게 많아서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워낙 기구하고도 드라마틱한 운명을 관통하는 까닭에 서인애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캐릭터다. “정말 다행인 것은 제가 체력이 좋은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하죠. 어렸을 때 리틀엔젤스 단원 생활하면서 무용으로 체력이 단련된 면도 있고요. 음식을 좋아해서 잘 먹는 게 더운 여름 촬영을 버티는 비결인 것 같아요. 보약은 따로 안 먹어요.” 황정음은 “인애도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더욱 성숙해질 거다. 그래서 보는 재미가 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휴뉴스